

自然과 그節約

韓 國 國 立 公 園 協 會

總務部長 李 鎔 德

世界的인 에너지쇼크로 인한節約運動은 우리나라에서도 汎國民運動으로 展開되어 가고있다.節約이란 아껴서 헛된 費用이 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즉 費用을 줄이는데 있는 것으로 집안에서는生活費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活動費를 줄이는 것이다. 國家에서는 豫算을 줄이고 모든 에너지資源이 되는 自然을 아껴쓰는데 있는 것이다. 自然은 서로 調和와 秩序를 이루면서 서로 共存하는 것이다. 自然은 새로이 創造할 수도 없고 無盡藏한 것도 아니므로 自然을 保護하고節約하지 아니하면 滅亡하여 갈 뿐이다.

自然公園이라는 語彙와 制度도 여기에 그意義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公園의 管理는 最大의 保護와 最少의 利用이 그 目的이라면亦是 自然의 保護와 自然의節約이란 前提下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76년부터 汎國民運動으로 提唱되어 定着되어가는 自然保護運動이 새마을精神으로 昇華되어 가는 이마당에節約運動이 다시 提唱되어가는 것은 바로 에너지節約運動이요. 自然公園의 保護運動과도 결부되는 것으로 매우 鼓舞的인 것이다.

에너지節約은 또한 公害減少에도 큰影響을 미치므로 環境保護에도 直結되어 一石三鳥의 效果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自然의節約은 國家富強의 根源이 되며 金錢(物資)의節約은 個人的 治家の 根本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個人的節約에 對한 例를 들어 보고자 한다. 現在 서울市内에서 數十億代의 富豪家로 生存하고 있는 분으로서 約 40 餘年前에 治家할때의 일인즉 自轉車 一台를 가지고父子 두분이 한사람씩 交代로 타고 24 km 距離를

往復하면서 5日마다 開設되는 “음네시장”으로 商來去를 하여 治富한 實話가 있다. 筆者가 1978年 12月頃 大邱行 “새마을 列車内에서 日本大阪市에서 製服業을 經營하는 日本人實業家(社長)와 偶然히 同席하게 되었다. 그社長은 日本 “담배 “中級品으로 滞韓豫定 1週間所要量을 日本에서 買入準備 해가지고 왔다고하며 같이 말벗이 되어 交換해서 피웠다.

그의 會社는 年輸出高 20億圓이라 한다.

위 두 분의節約生活에 있어서 先者는 에너지面에서도 生覺者로 볼수있고 後者는 國產品愛用이라는 면에서도 一家見이 있다고 본다. 如何든節約에 있어서의 우리모두의 龜鑑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實例를 드러보면 筆者는 約 2個月 前에 집修理를 하기 위해 4日間에 네 사람의 人夫(工事費 都給)를 使用한바 있다. 勿論 食事와 間食을 提供하고 그외로 그들의 要求에 依하여 “거복선 “담배 한갑씩을 썬비스하였다. 外國의社長은 自己나라의 中級品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나라의 人夫들은 高級 “담배”를 피우니 너무나 對照的이며 어딘가 잘못된 現實이라 할수 있다.

“節約은 즉 富”라 할때 그 人夫들은 언제社長이 될수있고 富豪家가 될수있을까 말이다.

우리나라의 어느 高位層 한분은 “은하수” 담배를 愛用한다지 않은가.

節約에 있어 筆者도 未洽한 點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此際에 自己反省을 하면서 스스로 아끼고 지키는 自然節約과 物資節約運動을 民族的 矜持와 슬기로 實際 生活에서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